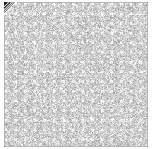




한국에 진출한 남녀수도회 목록



고 계신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미 혼인성사도 받으셨고 자녀분도 있으시다면 하느님께서 평신도의 삶으로 당신을 찾고 증거하길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성직자나 수도자의 부르심, 평신도의 부르심에 질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부르심입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3회입니다. 제3회는 교회법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교회법 303조) 제3회 회원들은 수도자들처럼 가난, 정결, 순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서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결을 독신의 형태로 지키지 않아도 되고, 결혼 생활을 이미 하시는 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속에서 살아가지만, 수도회의 지도에 따라 수도회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제3회에 참여하는 것은 평신도가 복음 삼덕을 살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미니칸 평신도회’, ‘재속 가르멜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등이 있으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면 우상숭배인가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비롯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는 명령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흠숭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그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죠.

우상숭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로 표현되는 거짓 신에게 그 신이 그 사물



2013년, 직지사를 방문하신 김희중 대주교님 모습 (사진 제공: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안에 내재한다고 믿고 하느님께 드릴 예배를 바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가톨릭대사전, 우상숭배 항목 참조). 즉, 우상숭배는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타 종교 성상 문제 이전에,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성상 공경 논쟁에서도 적용되었던 원칙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고상, 천사상 등 성상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비판 앞에서 우리 교회는 당당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성상에 무슨 미신적 신뢰를 두어서가 아니다. 단지, 성상이 상징하는 대상에게 존경을 뜻을 표시할 뿐이다.”라고 말이죠(트리엔트 공의회). 하느님을 굳건히 믿고 있고, 그 성상이 하느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한 성상에 표하는 존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 종교 성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리 교회의 원칙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성상 안에 신적 존재가 내재한다고 믿지도 않는다면 외적인 존중의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사는 타 종교의 신적 존재에 대한 경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과 해당 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차원에서 인사한다면, 종교 간 대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으리라 희망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에 스스로 얼마나 당당 하느냐의 여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